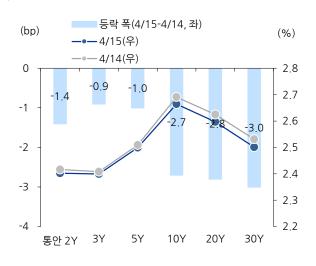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4/15일	1D	1W	YTD		
국내	한국 국고채 3년물	2.399%	-0.9	-1.4	-19.7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644%	-2.7	-2.2	-19.1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6.5	28.3	27.3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45	3.0	3.0	80.08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20.36	25.0	17.0	344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848%	-0.1	12.0	-39.2		
	미국채 10년물	4.336%	-4.2	4.0	-23.7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48.8	52.9	56.7	33.3		
	독일국채 10년물	2.532%	2.5	-9.0	16.9		
	호주국채 10년물	4.300%	-5.5	9.9	-6.8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전일 월러 이사 비둘기 발언 및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기대로 하락한 미국채 금리 연동, 강세 출발. 장 중외국인 매수세 유입, 아시아장 미국채 약세 등 상충된 재료 소화하며 등락.
- 금통위 앞둔 대기 심리도 지속. 금투협 설문 상 시장 참 여자 다수는 한은이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할 것 으로 예상
- 한편 최상목 기재부 장관, 당초 언급했던 10조원 규모 대비 2조 늘린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편성할 것이라 밝힘. 당일 시장 영향은 제한적.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미 재무부 부장관, 미 채권시장의 보완적 레버리지비율 (SLR)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며 미국채 매 도세 진정.
- SLR 완화는 월가가 적극 요구하는 사안으로, 은행들의 미국채 매입 증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.
- 백안관은 중국을 향해 관세 협상을 촉구하는 모습. 백
 악관 대변인,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에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고, 중국도 미국과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.
- 4월 뉴욕 제조업지수는 예상치를 대폭 상회. 다만 시장 영향은 미미했음.



FX & Commodity (단위: %							
		4/15일	1D	1W	YTD		
환율	원/달러	1,425.50	0.1%	-3.2%	-3.2%		
	달러지수	100.16	0.5%	-2.7%	-7.6%		
	달러/유로	1,128	-0.6%	3.0%	9.0%		
	위안/달러(역외)	7.33	0.2%	-1.2%	-0.1%		
	엔/달러	143.23	0.1%	-2.1%	-8.8%		
	달러/파운드	1,323	0.3%	3.6%	5.7%		
	헤알/달러	5.89	0.5%	-2.1%	-4.8%		
상품	WTI 근월물(\$)	61.33	-0.3%	2.9%	-14.5%		
	금 현물(\$)	3,230.78	0.6%	8.3%	23.1%		
	구리 3개월물(\$)	9,137.00	-0.5%	5.6%	4.2%		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1.40원 상승한 1,425.50원에 마감.
- 간밤 달러는 추가 약세를 보였으나, 전거래일
 20원 넘게 급락했던 달러-원은 추가 하락이
 제한되는 모습.
- 개장 직후를 고점으로 반락해 오후 중 1,419 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안착에는 실패. 장 중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 정 책 관련 발언을 주시, 결제수요는 하단을 지지 하는 양상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그간의 약세를 되돌리며 반등 에 성공, 100선 재진입.
- 간밤 경제지표나 관세 정책 관련 추가 이슈는 없었던 가운데 미국 자산 매도세가 진정되면 서 그간 급락했던 달러가 반등.
- 미국 재무부는 SLR이 시장 운영에 제한적 요 인이 되는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.
- 백악관은 중국은 결국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
 면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.
- 금일 미국 소매판매 및 파월 의장 연설 예정.